
'22년 추석 방역·의료 대책

2022. 8. 31.

관계부처 합동



목 차



I. 수립배경	1
II. 추석 연휴 방역·의료대응 전략	3
III. [개인]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‘일상방역’ 생활화	4
IV. [시설]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철저	6
V. 추석 연휴 코로나19 의료이용 안내	12

I. 수립배경

1 대책 수립 개요

① 추진배경

- BA.5 변이 확산(95.5%, 8월 4주)에 따른 6차 유행에도 일반국민 대상 거리두기 등 사회적 제한 없이 확진자 발생규모 감소세로 전환*
 * 주간 일평균 확진자(명) : (7.4주) 7.9만 → (8.1주) 9.7만 → (8.3주) 12.7만 → (8.4주) 10.9만
-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역·의료 대응방안 마련 필요

< '21년 추석(9.21)과 현재 방역지표 비교 >

유형	'21년 추석(9.21)	'22.3.17(5차 유행)	'22.8.31(6차 유행)
일일 확진자(사망자)	1,729명(4명)	621,205명(429명)	103,961명(75명)
누적 확진자(사망자)	289,259명(2,413명)	8,249,763명(11,481명)	23,246,398명(26,764명)
확보병상 수(병상가동률)	11,179개(60.3%)	33,013개(52.3%)	7,465개(43.5%)

② 중점 추진방향

-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, 「추석 특별방역대책(9.3)」을 발표하여,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현장점검 강화 등 추진
- 금년 추석은 거리두기·모임 인원 제한 등 미적용, 신속한 진단·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의료대응 체계 정비
 -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과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료이용 정보 등을 안내드리고자 함

< '21~'22년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및 의료대응체계 비교 >

	'21년 추석 연휴(9.19~9.22)	'22년 추석 연휴(9.9~9.12)
다중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집합금지) 유흥시설 집합금지(수도권) ◦ (운영제한) 22시까지 운영(수도권·비수도권) 	별도 제한사항 없음 (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.18~)
사적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가족모임) 가정 내 최대 8인(접종 미완료자 4인까지 가능) ◦ (사적모임) 18시 이전 4인·18시 이후 2인 가능(수도권, 4인 가능(비수도권)* * 접종완료자 포함 시 6인(수도권)·8인(비수도권) 가능 	
의료대응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가·주도 병상확보 및 중증도별 지정병원 입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동네 병의원 등 대면진료 지정병상 및 일반의료체계 입원 병행

2 코로나19 환경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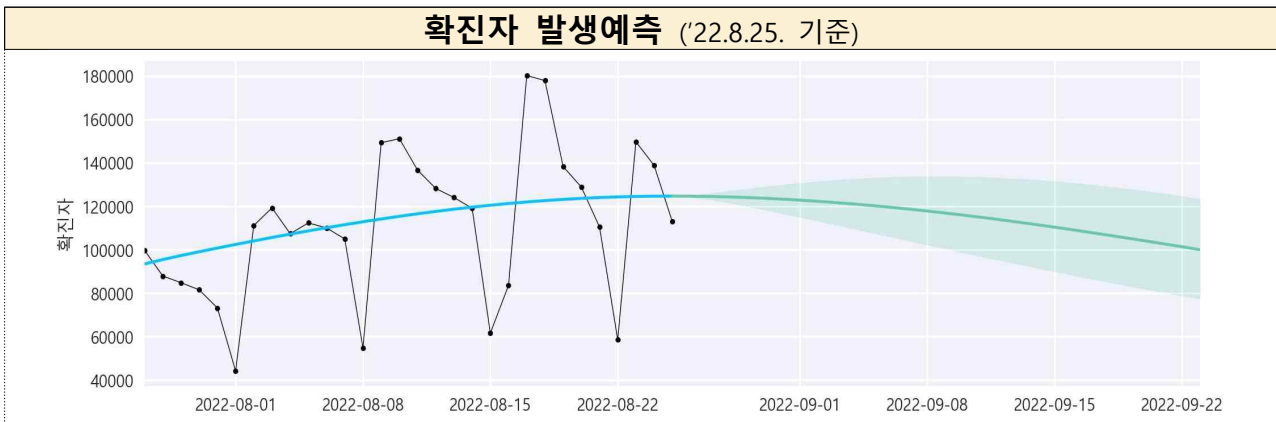
1 코로나19 발생 현황

- **(확진자)** 8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76.9만명으로 전주 대비 13.8% 감소, 누적 확진자 약 2,325만명으로, 전체 인구 대비 45% 확진 경험
* (8월1주) 68.1만 명 →(8월2주) 85.2만 명 →(8월3주) 89.3만 명 →(8월4주) 76.9만 명
- **(사망)** 주간 사망자*는 확진자 규모에 후행하며 7월1주부터 증가
* (8월1주) 209명 → (8월2주) 330명 → (8월3주) 414명 → (8월4주) 519명

2 유행 전망

※ '22.8.25. 분석 자료로 이후 추가 분석 시 변동 가능함

- **(확진자 발생 전망)** 이번 주 정점 구간을 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, 이후 서서히 감소 예상



- **(사망자 발생 전망)** 향후 4주 간 큰 감소 없이 일평균 60명대 발생 예상
* 사망자 예측(질병청) : (8.31.) 67명 → (9.7.) 68명 → (9.14.) 66명 → (9.21.) 63명
- **(평가 및 시사점)** 현재 BA.5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추정, 이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 반복 등 다양한 가능성 존재
 -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반등 가능성 낮으나,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의 영향 관찰 필요
 - 국민은 일상을 영위하면서 방역수칙 준수하되, 확진자의 중증화·사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의료대응 체계 준비가 중요

II. 추석 연휴 방역·의료대응 전략

목표

추석 명절, 일상생활은 영위하고, 의료대응은 촘촘하게

추진 전략

- ◆ **[방역]** 개인은 일상방역, 정부는 밀집예측시설 방역 대응
- ◆ **[의료]** 정부(보건소)와 민간(동네 병의원) 공동대응으로 진료 공백 방지

대응 계획

방역 대응

- [개인]**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‘일상방역’ 생활화
 -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,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기
 -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, 이동 간 일상방역 준수
- [시설]** 이용 제한은 ‘최소화’, 방역관리는 ‘철저’
 - 교통수단을 활용한 사회적 이동시설 내 취식 제한 조치 등 최소화
 -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·관리 시행

의료 대응

- [진료체계]** 어느 지역에서도 의료공백이 없도록 대응
 - [진단·검사]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 중단 없이 운영
 - [진료·처방] 연휴기간 지역별 원스톱진료기관·약국 필수 운영
 - [재택치료] 진료 외 의료상담센터·행정안내센터 활용한 상담·대응
- [응급·특수]**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
 - [응급환자] 골든타임 내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락·이송체계 유지
 - [특수환자] 상시 치료수요에 대응하여, 전담병상 지정·운영
- [안내]** 연휴 간 의료이용정보 실시간 안내체계 구축
 - 연휴에도 검사의료기관 운영 여부는 포털사이트 통해 실시간 확인
 - 재택치료자 대상으로, 연휴 기간에 이용 가능한 의료정보 제공

Ⅲ. [개인]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'일상방역' 생활화

① 소규모로 짧게, 안전한 방문

- (고향 방문) 고연령층·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, 친족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

*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90% 이상은 60세 이상에 집중(8월 3주 기준),
코로나19 입원환자의 94.9%가 최소 1개 이상 기저질환 보유(미국 CDC, '21.7)

-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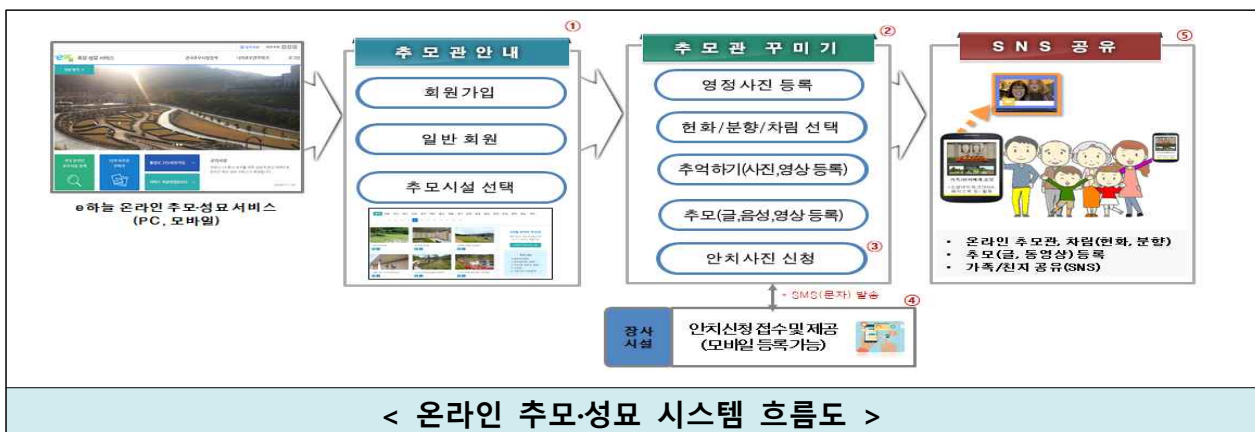
* 60세 이상 미접종자·1차접종자의 사망률은 60세 이상 3차·4차 접종자의 20배 수준 ('22.2월1주~8월2주 간 60세 이상 사망자의 예방접종률 분석 결과)

- 고위험군 방문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* 및 환기 철저

*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80, KF94) 우선 권장

- (추모·성묘·별초) △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, △온라인 추모·성묘 서비스(www.15774129.go.kr) 적극 이용, △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, △별초 대행 서비스(산림조합, 농협 등) 이용 권고* 등

* 산림조합 및 농협 별초 대행 참여 조합 확대('21, 416개소 → '22, 442개소) 및 앱(NH농협 별초대행)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용 확대 추진



- (여행지 방문) 동호회·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여행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,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·가족단위 여행 권고

② 핵심 방역수칙 준수

- **(출발 전)** △코로나19 의심증상(발열·기침·인후염·근육통 등) 발생 시 진료받고 방문·여행 취소·연기, △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가능한 미리 예방접종 마치고, △3밀(밀폐·밀집·밀접)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
 - 고연령층, 50대* 및 기저질환자 등은 4차접종 참여 적극 권고
 - * 50대는 60세 이상 연령층과 당뇨병,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 유병률이 유사 ('15.1월~'22년 6월 기저질환 유병자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)
- **(이동 시)** △가급적 개인차량 이용, △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, △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, △3밀장소 출입 자제 등
 - *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·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, 섭취 중 대화 자제
- **(방문 중)** △가급적 짧게 머무르기, △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, △손 씻기,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개인 방역 철저, △3밀(밀폐·밀집·밀접)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



- **(귀가 시)** △일정 기간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
 - △코로나19 의심증상(발열·기침·인후염·근육통 등) 발생 시 진료받고*, 고위험군은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복용
 - * 포털사이트(네이버·다음)와 생활안전지도(행안부)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(원스톱 진료기관) 검색 가능
 - △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 최소화, 개인위생 철저

IV. [시설]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철저

1 공항·교통시설 등

- ☞ 시설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, 안내인력 등 배치
- ☞ 버스·철도 등 운행 전 소독, 주기적 환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

① 해외여행 시 출입국(국토부)

- (검역정보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* 이용 안내·홍보, 터미널 내 검역지원(대기열 관리 등) 인력 추가 배치** (총 140명)
 - * 입국자가 입국 전 검역 정보 등을 미리 입력·신고하는 웹 기반 검역신고시스템
 - ** 현재 인천 175명(군 130, 공사직원 45명), 김해 19명, 대구 10명 투입 중이며, 공항(인천·김포·김해·제주·청주·대구·무안·양양)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추가 투입
-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·검사는 면제(9.3~)하되,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(검사센터)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을 통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 제공
 - 인천공항은 총 4개소(T1 2개소·T2 2개소), 김해·제주공항 각 1개소 운영

<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현황 >

구 분	T1 (동편)	T1 (서편)	T2 (동편)	T2 (서편)
운영개시	'21. 8월	'21. 9월	'22. 7월	'20. 12월
운영자	이원의료재단	명지의료재단	이원의료재단	인하대병원
위치	교통센터 1층	교통센터 1층	지하 1층 동편	지하 1층 서편
운영시간	(출국 검사) 07:00~18:00 (입국 검사) 24시간 운영	(출국 검사) 07:00~18:00 (입국 검사) 24시간 운영	(입국검사) 24시간 운영 * 입국검사 전용	(출국 검사) 07:00~18:00 (입국 검사) 07:00~21:00
검사종류	PCR 검사, 항원 검사, 항체 검사			
검사용량	일 2,300명	일 2,300명	일 1,300명	일 1,650명
운영현황				

② 교통 관련 시설(국토부·해수부)

- (고속도로) 추석 연휴 기간,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검토(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)

☞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**통행료 면제 시행 현황**

- '17년 추석~'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고속도로 **통행료 면제 시행**
- '20년 추석부터 4차례 코로나19 확산 상황 고려하여 명절기간 **통행료 부과**

- (휴게소 등)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라 휴게소·졸음쉼터 혼잡완화를 위해 인력 추가 배치(7,413명→9,368명, 1,955명 증) 등 방역관리 강화
 - 실내 취식 허용하되, 임시 화장실 확충(687칸)하고, 가용 중인 도로 전광판 등 활용해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분산 유도

휴게소 진입 前 혼잡상황 안내	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상황 안내 전광판
 <p>휴게소 진입 전 혼잡상황 안내 표지판. '휴게소 혼잡' 표시가 켜져 있으며, '다음 휴게소 옥천 33km'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</p>	 <p>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상황 안내 전광판. '휴게소 혼잡'과 '다음 휴게소 이용'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</p>

- (버스·철도 등) 전 좌석 발매 및 실내 취식 허용하되, 운행 전·후 소독·주기적 환기 실시, 실내방송으로 탑승 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집중 홍보

< 교통수단별 환기 준수사항 >

- (철도) 매 4.5~6분마다 주기적으로 환기
- (고속·시외버스) 매 20~30분마다 주기적으로 환기
- (항공기) 고성능 공기정화필터 주기적 교체·공기순환시스템 실시간 작동
- (연안여객선) 출입구 및 창문 개방을 통한 객실 환기

열차 내부 방역	항공기 내부 방역	고속버스 내부 방역
 <p>열차 내부 방역 모습. 방역소독 차량이 열차 좌석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.</p>	 <p>항공기 내부 방역 모습. 승무원이 항공기 좌석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.</p>	 <p>고속버스 내부 방역 모습. 방역소독 차량이 고속버스 좌석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.</p>

- (예매) 비대면 예매 우선*, 현장발매 시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

* 추석 KTX 사전 예매는 한칸 띄어앉기 없이 8.16~18일에 전 좌석 판매

< 교통수단별 비대면 예매 지원사항 >

- (버스) 모바일·인터넷 예매, 현장 발매 시 창구 대표 투명가림막 설치 등
- (철도) 전 좌석 중 10%는 취약계층(노인·장애인)에 할당, 인터넷·전화로 예매
- (항공) 키오스크 발권, 모바일·인터넷 예매 등 방역관리 강화
- (연안여객선) 모바일 승선권, 인터넷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 강화

○ (철도역사·버스터미널 등) 이용객이 집중되는 화장실, 대합실 등에 상시 손소독제 비치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



○ (여객선·여객터미널 등)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려 승선 수요 분산, 개인방역수칙 등 홍보, 여객선 및 터미널 환기·소독* 철저

* 여객선 중간 기항 시 적극 환기, 항해속력 15노트 미만 여객선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 항해 중 객실 출입문 개방, 여객터미널 환기시설 지속 가동

- 연안여객선 내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여객터미널은 전광판·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준수 지속 홍보*

* 마스크 상시 착용, 음식물 섭취 시 대화 자제 및 신속히 섭취, 식사 전후 손씻기 등



2 요양병원·시설 등

- ☞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실시·접촉면회 금지 등 방역수칙 적용
- ☞ 연휴기간에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동반·일반의료 등 활용

- (면회제한) 접촉 면회는 금지하되,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를 허용하고, 면회 간 방역수칙* 준수 철저

*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금지, 면회 전·후 면회실 소독·환기 철저



- (방역조치)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,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강화

*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+ 출근 후 1회 추가

- 추석 전후 입소자·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, 호흡기 증상확인

* 증상 발현 시 종사자는 업무배제, 입소자는 별도 공간 격리 조치

- (의료지원)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, 확진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 및 일반의료체계 활용 강화

- (기동반) 시도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반 확인·안내, 요양 시설 등의 추가 수요 시 한시적으로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

*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

- (의료연계) 연휴 기간 운영·활동 가능한 호흡기진료센터, 계약의사 등 확인 및 보건소와 요양시설,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망 운영

3 전통시장·백화점 등

- ☞ 정부-지자체-업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 운영
- ☞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방문객·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안내

① (전통시장) 일반국민 및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'중기부-상인회-소상공인진흥공단' 연계한 방역·비상대응 추진(중기부)

- (방역점검) 상인회(1,705개), 지방청(13개),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(70개)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·소독 등 자체 방역 강화 등 점검 추진
 - 시장 내 전광판,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홍보
- (비상대응) 방역 상황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해 중기부(시장과)·지방청, 소상공인진흥공단(지역센터) 간 비상연락망* 구축·운영
 - * SNS(텔레그램) 활용 각 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참여(180여명)

② (백화점·마트) 방문객 급증에 대비, 시설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업계-지자체-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*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(산업부)

* (1단계)매일 업계 자체점검 → (2단계)지자체 상시점검 → (3단계)정부 특별점검(주3회)

- (실내방역) 방역관리자를 지정, 방문객·종사자 방역수칙(실내마스크 착용 등) 준수 확인하고, 손소독제 비치, 방역 안내방송 실시(시간당 3회)
- (취식관리) 식품관 등 취약지역의 소독·환기를 강화하고, 시음·시식코너는 가급적 운영 자제 및 취식 간 이동 금지 등 관리 철저



4 공연·여가시설 등

- ☞ 공연·전시 주최 측에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 권고
- ☞ 온·오프라인 방역수칙 게시 및 주기적 환기·소독 등 방역수칙 안내

1 박물관, 영화관·공연장(문체부)

- (수칙안내) 식음료 섭취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, 대화 자제 등 관람객 대상 온·오프라인 방역수칙 게시·안내 및 준수 요청
- (환기실시) 주기적인 전시·상영장 소독, 매점 위생 점검 실시하고, 영업 개시 전·후 및 상영 회차 사이 환기 시행
 - 공연·전시 주최 측에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* 권고
 - * 마스크 추가 지급, 증상의심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양성 시 귀가조치 실시,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, 열감지 카메라 설치 등



2 식당·카페(식약처)

- 음식 섭취 전·후, 대화 시 마스크 착용(마스크 벗는 시간은 짧게), 주기적 실내 환기(1일3회)·소독(1일1회), 다른 일행과 1m 이상 거리두기, 손씻기 등
- *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생활 방역수칙 준수 독려



V. 추석 연휴 코로나19 의료이용 안내

1 코로나 진단·검사 시 의료이용

- ☞ **(검사)** 선별진료소,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 검사 가능하며,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검사소에서 누구나 무료검사 시행
- ☞ **(자가진단)** 증상 의심 시 약국 외에 편의점에서도 진단키트 구매·검사

① 선별진료소(603개소)·임시선별검사소(69개소) 운영(복지부·질병청)

- **(연휴운영)** 연휴 기간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검사기관*은 휴일에도 운영하고, 네이버·다음 등에서 운영 장소·시간 확인 가능
 - *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외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 (서울)서울역·청량리역·고속버스터미널, (경기)안중터미널, (부산)부산역 등
 - 보건소(선별진료소) 등에서 제한적 대상자*에 한해 무료 PCR 검사 중
 - * 만60세 이상·자가진단 양성자·확진자의 동거인(밀접접촉자),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
- **(확대운영)** 연휴 동안, 전년 추석과 동일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선별검사소(9곳*)를 추가 운영하고, 무료 PCR 검사 지원
 - * (경기)안성·이천·화성·용인, (전남)백양사·함평천지·보성녹차·섬진강, (경남)통도사
 -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선별검사소에서는 대상자 제한 없이 무료검사

② 자가진단키트 안정적 공급(식약처)

- **(구매처)** 모든 편의점에서 한시적으로 진단키트 판매 허용 중(~9.30)으로, 연휴 기간에 영업 중인 편의점·약국 및 온라인 등에서 구입 가능
 - * GS25, CU, 7-Eleven, 이마트24, 미니스톱, 씨스페이스24, 스토리웨이
 - GS25, CU, 7-Eleven 3개 편의점은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



2 코로나 확진(재택치료) 시 의료이용

- ☞ (상담·안내) 의료상담센터(증상상담), 행정안내센터(의료기관 정보 등) 전화상담 제공
- ☞ (진료·처방) 시군구 단위 원스톱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해 진료·처방
- ☞ (입원) 원스톱진료기관 전원 의뢰, 보건소·119 등 통해 입원병상 배정
- ☞ (특수치료) 특수병상 가동병원 운영하며, 119 등 통해 지정병상 신속배정

<재택치료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대응 흐름도>

0 진단·검사	1 재택치료	2 진료	3 증상악화 / 응급
선별진료소 (임시선별검사소) 동네 병·의원 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	건강관리 재택치료전담반 * 모니터링(초기1-3회)	원스톱진료기관 ■ 대면·진료 ■ 먹는 약 처방	증상악화 ■ 기저질환(非코로나질환) - 일반병원, 일반격리입원 ■ 코로나19 증상 - 입원치료, 지정병상배정
	증상발현 (사전 문자안내) 가까운 병의원 안내, 진료·상담 방법 확인	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·처방 (24시간) * 응급상황 : 119	응급·특수치료 ■ 호흡곤란, 의식저하 - 119 구급대 이송 ■ 소아·분만 등 응급 - 전담 병원·병상
원스톱진료기관 ※ 검사-진료-처방 모두 가능			

1 (상담·안내) 의료상담센터 운영(복지부)

- (의료상담) 8.31일 기준 177개소 운영 중이며, 연휴기간 148개소 이상 운영하고, 일자별 개소기관 현황 및 운영시간은 온라인 안내 실시*

* 코로나19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안내

< 연휴 기간 운영 예정 의료상담센터(주·야간) 수 >

구분	9.9일(금)	9.10일(추석)	9.11일(일)	9.12일(월)
주간운영(야간운영)	160(145)	148(140)	153(141)	166(144)

- (재택안내) 연휴 중 행정안내센터*와 재택치료전담반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 및 당번 의료기관·약국 등에 대한 안내

* 추석 기간에도 지자체 행정안내센터(211개소) 운영 예정

② (진료·처방) 확진자의 진료와 치료제 처방(복지부·질병청)

- (원스톱진료기관) 10,037개(8.31일 기준) 원스톱기관 중, 연휴 기간 5,300개소 이상 운영하고, 일자별 여는 병·의원은 온라인 안내*

* 코로나19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 ‘호흡기환자진료센터’ 란에서 ‘원스톱진료기관’ 확인

- 연휴 간 시군구 단위로, 요일별로 원스톱진료기관을 필수 운영 하여, 확진 환자의 의료이용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비

* 포털사이트(네이버·다음) 검색 시 연휴 기간 진료기관 개소 여부와 운영시간 안내 예정, 먹는 치료제 처방 시 해당 병·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조제약국 정보 안내

- 연휴 한정, 전국 응급의료기관(409개소)과 처방 가능 병의원·약국이 없는 지역은 보건소*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·조제하도록 조치

* 연휴기간 일자별 원스톱진료기관 2곳 이하 개소하는 시군구는 보건소 필수 운영

< 연휴 기간 운영 예정 원스톱진료기관 수 >

구분	9.9일(금)	9.10일(추석)	9.11일(일)	9.12일(월)
원스톱진료기관(개소)	1,585	643	830	2,315

- (먹는 치료제) 원스톱진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료제 구비 약국 확보

- (공급) 연휴 감안, 수요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·약국 등에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(2주일 분 이상)하여, 차질없이 처방토록 준비

* 연휴기간 당번약국의 먹는 치료제 보유량 소진 시, 보건소 보유량을 추가 공급해 대응

- (당번약국) 원스톱진료기관 인근의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을 당번 약국으로 운영*하고,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먹는 약 조제

* 연휴기간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원스톱진료기관 인근 약국으로 지정·운영

<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번약국 수 >

구분	9.9일(금)	9.10일(추석)	9.11일(일)	9.12일(월)
당번약국(개소)	5,842	2,149	2,873	7,638

* 8.30일자 기준, 9.7일까지 참여 약국 취합 예정

- (감기약) 연휴 기간 운영 중인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,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부 감기약·해열진통제 등은 24시 편의점(약4만개소)에서 판매*

* 해열진통제(타이레놀·어린이타이레놀·어린이부루펜), 종합감기약(판콜에이·판피린티)

③ (입원치료) 재택치료 중 증상악화 시 입원 연계(복지부)

- (병상배정) 원스톱진료기관 문진 후 전원 의뢰 또는 보건소·의료상담 센터에 연락하면 필요 시 병상 배정(8.31 기준 7,465병상 운영, 43.5% 가동 중)
 - 의료진의 대면·비대면 진료 후,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정 격리병상을 활용하여 입원 치료 가능
- (일반입원) 기저질환자, 경증환자는 다니던 병원 등 일반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활용, 입원치료 가능하도록 통합격리관리료 지원
 - * 총 637개 병원에서 12,825개 병상 운영 계획으로, 현재 7,240명이 일반병상에 입원 중(8.31)
- (응급입원) 고열·호흡곤란 등 악화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*을 통해 응급 이송 및 응급실 병상 배정 안내
 - 비상연락 핫라인(보건소-응급의료기관-119) 운영, 응급병상 1,267개 (음압 417, 일반격리 850 코호트 400 등) 확보하여 연휴 중 활용
 - 수도권은 중증병상 당번병원(3개 병원 9개 병상)*을 운영하여, 연휴 기간 코로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병상 배정 조치

④ (특수치료) 소아·분만·투석 등 특수환자는 신속 대응체계 운영(복지부)

- (계획수립) 연휴 기간 특수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·도별 특수병상 운영계획을 수립*하여, 특수병상 가동체계 유지
 - * 연휴 기간 중 소아·분만·투석 입원 가능 병원 조사 및 대응체계 마련(~8.31)
- (운영현황) 특수치료병상 3,874개 확보·운영(8.31일 기준) 중으로, 연휴 기간 요일별 특수병상 가동병원을 지정·운영할 예정
 - * 소아·분만·투석 환자 등 특수치료 진료환자는 내원 중인 호흡기환자진료센터·외래투석센터 진료 후, 필요시 전원 및 지정병원 특수병상 연계 지원
 - 119, 120(시·도 콜센터)에 연락하면, 특수치료 지정병상 신속 배정 안내

< 투석·분만·소아 특수병상 확보 현황(8.31) >

구분	투석		분만			소아			
	계	지정병원	일반병원	계	지정병원	일반병원	계	지정병원	일반병원
병상수	718	407	311	338	255	83	2,818	645	2,173